

존경하는 전주부설초 학부모님께

연일 이어지고 있는 추위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평안하신지요?

학교는 학년말 업무 처리로 매우 분주하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늘 학교와 선생님의 중심에 있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일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가르치는 학교, 실수를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학교,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학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학교, 그래서 학교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학생입니다.

2022년 한해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집단 지성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교육적으로 유익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장벽 뒤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학교를 신뢰하고 선생님을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선생님들은 올 한해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가장 학교다운 학교를 만드는 일에 진력했습니다. 제가 교장이라서가 아니라 수많은 학교와 학부모를 컨설팅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선생님들이시고 보석 같은 선생님들이십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소녀는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께 길에서 주워 온 야생화를 내밀며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꽃을 한참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내일 알려줄게."

선생님의 말에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주운 꽃인데 이 꽃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도 모른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또 놀라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아빠도 꽃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녀의 아빠는 식물학을 전공으로 대학에서 강의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간 소녀를 담임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질문한 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녀는 아빠도 모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알려준 선생님이 역시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젯밤 소녀의 아빠가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그 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딸이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은 백년대계의 약속입니다. 백 년의 미래를 위해 백 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길고 긴 과정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 잘 연

계되고 조화를 이루어 가정에서는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는 전주시 전역에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경제·문화·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모여서 함께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이르기를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 반드시 그중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지요. 착한 자는 가려 따르고, 착하지 않은 자는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했지요. (三人行必有我師) 우리 학생들도 친구의 좋은 점은 본받고, 친구의 좋지 못한 점을 보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 학교는 더 없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며 살아갑니다. 이제 학교 교육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진 세상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요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학교 교육이 사회와 연계되어 일관성을 갖기 어렵게 된 부분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교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교육으로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도 사회와 상호작용 속에 성장합니다. 그 사회가 건강하고 성숙할수록 학교 교육도 그만큼 건강하고 성숙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교는 존중과 배려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 덕분에 좀 더 나은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음을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또래 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성을 기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맺음이 성공적인 경험으로 누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다투고 나서도 화해하는 법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성인들이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의존적인 자의식을 길러주게 되어 독립적인 인격 주체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혹시라도 친구와 다투었다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 화해했다면 칭찬하고 격려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가정과 학교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친구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즉시 사과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이좋게 공부하는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온 몇 가지 소회를 간단히 적었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더 많은 교육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2. 12. 16

교장 이영환 올림